

메르스 사실상 종료...확진환자 완치 판정

서울대병원 일반병실로 옮겨 광주·전남 접촉자 14명도 발열 등 별다른 증상 없어

국내에서 3년여 만에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 A(61·서울)씨가 확진 열흘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고, A씨와 비행기를 함께 탔던 광주·전남지역의 밀접접촉자 1명도 일상접촉자 13명에게서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등 이번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

단 보건당국은 메르스의 최종 잠복기(14일)가 지나서 21일까지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상태라면 국내 메르스 사태는 오는 22일 0시 '사실상' 종결되지만, '공식' 종료일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잠복기 등을 감안한 기준에 따라 내달 16일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메르스 확진자 A씨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음압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지난달 16일 쿠웨이트로 출장을 갔다가 이달 7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으며, 귀국한 즉시 방문한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최근 의료진이 환자의 메르스 증상이 없어진 것으로 보고함에 따라 지난 1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확인 검사를 했고,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완치 판정이 내려졌다.

이 환자는 이날 오후 격리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 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현재 자택과 시설 등에서 격리 중인 밀

접촉자 21명에 대해서는 20일에 메르스 확인 검사가 실시된다.

광주의 밀접접촉자도 20일 최종 검사를 받은 뒤 결과에 따라 오는 22일 밤 12시 자택 격리도 해제된다. 정부는 밀접접촉자의 메르스 2차 검사 결과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가문제 없으면 22일 사실상 메르스 종료"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소개하고 "사실상 메르스가 종료되면 밀접 접촉자 격리 해제, 일반 접촉자 모니터링이 해제된다. 격리자 손실보상은 정부가 지원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국민,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감사하다"며 "메르스 유행상황이 종료되는

날까지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접촉자 중 의심환자로 분류된 광주지역의 밀접접촉자 1명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광주·전남지역의 A씨와의 일상 접촉자 13명도 모두 아무런 이상 증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쿠웨이트에서 돌아온 A씨가 지난 8일 메르스 확진을 받은 이후 이날 오전까지 광주·전남지역에 추가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A씨가 탄 비행기 열차에 앉았던 광주·전남지역의 밀접접촉자도 지난 13일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또 광주·전남지역 일상접촉자 13명에게서도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들은 현재 평소처럼 일상 생활을 하는 대신, 보건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가위 송편 나눠요" 광주시 북구 장애인복지회 봉사단원들이 18일 복지회 4층 강당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형편이 어려운 800여 장애인 가정에 전달할 송편을 빚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시행 첫 해 1명 올들어 169명 적발 김영란법 위반 급증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 위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첫해 위반자가 1명이었던 2년도 안 돼 169명으로 늘었다. 광주와 전남에선 각각 5명과 10명이 적발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총 260명이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해 경북에서 1명이 위반한 뒤 지난해 90명이 적발됐다. 올해 들어서는 7월 말까지 169명이 적발되는 등 위반자가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 45명, 서울 40명, 경기 39명, 대구 14명, 전남 10명, 경북 9명 등의 순이었다. 또 경남·울산 각 7명, 광주 5명, 인천·대전·충북·충남 각 4명 등이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적발은 주로 신고로 이뤄지기 때문에 경찰청 통계는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추적을 앞두고 청렴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8 해질 18:34 달뜨기 15:13 달짐 00:40

흐린 가을 하늘
기압골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지겠다.

광주	흐림	19/27	보성	흐림	17/26
목포	흐림	20/26	순천	흐림	20/27
여수	흐림	21/25	영광	흐림	18/26
나주	흐림	17/27	진도	흐림	19/26
완도	흐림	19/26	전주	흐림	18/26
구례	흐림	17/26	군산	흐림	17/25
강진	흐림	18/27	남원	흐림	16/26
해남	흐림	18/27	홍산도	흐림	21/24
장성	흐림	17/2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동~남동	0.5~1.0
남부	면바다	북동~동	0.5~1.5	남동~남	0.5~1.5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동~남동	0.5~1.0
서부	면바다(동)	북~북동	0.5~1.5	동~남동	0.5~1.5
	면바다(서)	북~북동	0.5~1.5	동~남동	0.5~1.5

◇생활지수

- 위험: 식중독
- 보통: 지외선
- 보통: 미세먼지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3:37 15:17	09:01 22:25
여수	10:47 --:--	04:44 18:20

◇주간 날씨

20(목)	21(금)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	☁	☀	☀	☀	☀	☀
20/25	21/26	16/26	15/25	15/25	13/25	14/25

광주 한가위 보름달 24일 오후 6시 18분에 뜬다

한가위날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가장 둥근 보름달은 추석 당일인 아닌 25일 새벽에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18일 한국천문연구원 에 따르면 광주의 한가위 보름달은 추석 당일인 오는 24일 오후 6시 18분께 뜬다. 하지만 이날 달의 모습은 완전히 둥근 모습이 아니며, 뜨고 난 뒤 점점 차올라 다음날인 25일 새벽 0시 10분께 가장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다. 또 보름달이 지는 시각은 25일 오전 6시 9분이다.

한국천문연구원 관계자는 "추석 당일 보름달이 항상 완전히 등기지 않는 이유는 달이 지구 주위를 타원 궤도로 공전하는데, 태양 방향(합삭)에서 태양의 정반대(망)까지 가는데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음력 1일은 태양과 같은 방향을 지나가는 합삭 시각이 포함된 날이며 이날부터 같은 간격(24시간)으로 날짜가 배정된다. 하지만 달이 태양의 반대쪽을 향하는 때(망)까지 실제 걸리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둥근달은 음력 15일 이전 또는 이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 광산구 불법 부동산거래 의혹 450건 정밀 조사

광주 광산구는 18일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450여건을 대상으로 다운계약, 불법중여, 중간거래 생략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이 파악한 부동산 실거래가를 토대로 비슷한 규모와 조건의 인근 부동산보다 턱없이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매가 이뤄졌거나 민원인의 의심 신고가 접수된 사례 등이 조사 대상에 속한다.

조사과정에서 부동산 매매 미신고나 지연 신고가 발견되면 500만원 이하, 허위신고는 취득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산구는 불법중여 및 탈세가 확인되면 국제징수에 통보, 세무조사를 받도록 신고할 예정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내년 하반기 운행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고속·시외버스가 운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9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의 시승 행사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4월부터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및 운영기

술'을 개발 중이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버스와 운영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시범 상업운행을 시작할 방침이다.

행사에서 국토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추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공동 발표한다. 공동 발표문에는 저상버스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탑승 가

능 고속·시외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수단에 대한 정책 과제가 제시된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현재 개발 중인 휠체어 탑승 버스 표준모델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시승 행사를 마련했다"며 "행사를 통해 개선점 등도 확인해 휠체어 탑승 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시행하다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2018년 마음챙김 시민대학 교육생 모집

광주광역시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일상의 행복과 삶의 가치 재발견을 위한 마음챙김 시민대학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마음챙김이란?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수용적인 태도로 자각하는 것, 대상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하되 주관을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일상 속 알아차림
- 모집개요

자격요건	교육내용	교육시간	모집인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마음과 명상 이야기, 감정탐색, 마음 들여다보기, 그저 이해하는 깊은 명상, 페르소나, 마음도형 함께 그리기, 춤 테라피, 바디스캔, 하타요가 등	45시간	20명
- ※ 강사: 광주여자대학교 전임교원
- 모집기간: 2018. 09. 03(월) ~ 2018. 09. 28(금) ■ 교육기간: 2018. 10. 02(화) ~ 2018. 11. 22(목)
- 교육시간: 매주 화, 목 18:00 ~ 21:00 ■ 교육장소: 광주여자대학교 강의실 및 실습실(추후 안내)
- 교육특전: 교육비 지원(재료비 포함), 교재 제공, 수료증 발급 등
-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 접수
방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대길 201 광주여자대학교 여대관 1층 315호 평생교육원
전화: (062)950-3583~5

"마음을 관찰하다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미묘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때 직관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더 명료하게 사물을 보게 되며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스티브브리스(1955-2011)

주최 |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광주평생교육진흥원 Gwangju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주관 | 광주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